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I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chyoon@nypi.re.kr

요약¹⁾

- 지난 3년간의 학업중단 패널조사 결과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중에서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이 50%를 넘고 있으며,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직업형 청소년들도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반면 여전히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17%에 달함. 그러나 이들이 왜 이러한 경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들을 위해 각 유형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맞는 집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생태학적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4차조사 및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3차조사 결과와 비교한 이행경로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면접조사를 통해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실시하고 자원연계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및 자원연계의 초기 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례에 관련된 해외정책 및 국내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주요결과를 알아보면 학업형과 직업형은 진로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한 반면 무업형은 심리상담과 취업지원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꿈드림센터 연계경험의 초기 실태 분석결과에서는 대체로 검정고시나 심리·정서상담에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며, 일자리 관련 서비스는 요청에 비해 많이 제공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국내외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업형 청소년에게는 연령별 맞춤형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직업형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은둔형 청소년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발굴, 지원체계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고유과제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I'을 발체·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지난 3년간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학교를 나온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이 50%를 넘었으나 이들이 왜 학업을 지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되어있지 않음. 또한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직업형 청소년들의 하는 일, 일과 미래에 대한 설계 등에 대해서도 밝혀져 있지 않음. 학업을 중단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업청소년도 17%나 존재하는 실정이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불투명함.
- ▶ 지난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많은 발전이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국 202개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 환경 속에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앙정부에서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이 실수요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될까 등이 의문시되고 있음.
-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특성, 이행경로의 변화 및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이행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꿈드림센터에 연계하여 초기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패널 및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이행경로별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였고, 문헌자료를 통해 국내 외 정책을 파악하였음. 또한 패널을 꿈드림센터에 연계하여 향후 1년간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초기 사례관리결과를 분석하였음.

2. 연구결과

1)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특성

▶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특성

- 학업 경험 : 대학진학자가 35%, 검정고시 합격자가 30%였음. 다닌 대학은 주로 2~3년제 전문대나 4년제 대학임. 대학진학 이유는 '원래 대학진학계획이 있었'거나 '부모의 권유' 등이었음.
- 직업훈련 :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27%에 불과함.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학업/직업형은 '시간이 없어서', 무업형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많았음.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기술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임.
- 근로경험 : 약 45%가 조사 당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단순 서비스 노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1년간 근로경험이 있는 비율은 62%였음. 평균 3.25개월을 근무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58%가 1년 이내로 일을 그만둘 계획이 있음.
- 무업 경험 :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노는 것이 좋아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높음. 무업형 청소년들은 특히 '노는 것이 좋아서'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의 응답이 높았음.

- 진로 관련 특성 : 학업형은 진로정보탐색이 활발한 반면 무업형은 진로정보탐색에 소극적이고 진로정보가 부족함. 향후 진로계획을 보면 전체의 20%가 미결정자이며 무업형의 30%가 미결정임. 장래희망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6%임.
- 개인·환경적 특성 :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임. 직업형은 사회적응능력이 높으나 우울하고 사회적 낙인감도 높으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무업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심리·정서가 강함.
- 일상생활 : 학업형은 평일에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다른 시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무업형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여가시간, 취미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길고 수면시간도 불규칙함. 직업형은 식생활과 수면시간이 불규칙한 편임.
- 제도적 도움을 받은 경험 : 50% 정도가 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으며 만난 기관은 청소년 시설, 학원,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순임. 꿈드림센터 이용의사는 33%였으며 미이용 사유로는 시간이 없거나 방문하기 귀찮다는 사유가 주를 이룸.
- 성별 특성 :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노는 시간이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임. 반면 여자청소년은 진로정보탐색을 더 많이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 진로장애가 높음.
- 필요한 도움 : 대체로 경제적 지원과 진로상담의 욕구가 높았음. 학업형과 직업형은 진로상담, 무업형은 심리상담, 취업지원이 높음.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관련 욕구도 높음. 무업형 중에는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음.

▶ 이행경로의 변화 분석

- 이행경로의 변화 : 긍정적 유지는 58.3%, 부정적 유지는 9.2%로 약 68%가 중단 후 3년차까지의 경험을 4년차에도 유지함. 학업과 직업 간 전환은 16.5%, 긍정적 전환은 7.3%, 부정적 전환은 8.8%으로 이행경로 전환 비율은 약 30%임.
- 이행경로 변화의 결정 요인
 - 긍정적 유지 : 학업중단 친구 수가 적고, 진로정보탐색을 많이 하고,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낮을수록 높음.
 - 학업-직업 전환 : 학령기이고,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높을수록 높음.
 - 직업-학업 전환 : 연령이 높고, 진로미결정자일수록 높음.
 - 긍정적 전환 : 성인기이며, 가정경제수준이 중·하층이고, 진로정보탐색이 활발할수록 높음.
 - 부정적 전환 : 가정경제수준이 상층이고, 학업중단 친구가 많고, 도움이 필요했을수록 높음.
 - 부정적 유지 : 여자보다는 남자가, 일을 하지 않을수록, 진로정보탐색활동이 적을수록 높음.

2)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

▶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의 비교

- 20% 이상 요청 / 20% 이상 제공: 검정고시 관련(정보제공, 프로그램), 심리 및 진로상담 정보제공, 건강검진, 진학정보, 진로계획 상담, 관계문제 상담 등

- 20% 이상 요청 / 10% 정도만 제공: 직업기술 훈련지원, 자격증 정보제공
- 요청에 비해 많이 제공한 서비스: 의료관련 정보, 문화예술프로그램, 직업훈련관련 정보제공
-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일자리 정보, 자기계발 기회제공, 일자리 알선, 신체단련 기회제공, 검정고시비 지원 등
-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기존보다는 신규 패널이 서비스 요청률과 제공률이 높음.

▶ 서비스 제공방법과 해당 서비스의 지역기관 연계 실태

- 센터가 직접 지원한 비율이 60% 이상인 서비스는 46개 서비스 중 36개임.
- 외부기관연계가 높은 서비스: 건강검진, 건강교육, 무료치료병원 알선 등 건강 관련 서비스
- 많이 연계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지원 순이었으며 취업관련기관에의 연계는 10% 미만으로 나타남.

▶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3)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 만 7~18세 학령기는 약 42만 명, 만 19~24세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었음.
-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교급별·성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연령 13%, 중학교 연령 21%, 고등학교 연령 66%였으며 초등 및 고등에서는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7~8%p 높았음.

▶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학습지원과 복교를 위한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연령별 맞춤형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 발굴, 지원체계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진로·직업 상담시설과 대안교육 시설 확충이 필요함.

3. 정책제언

1) 기존 연구의 정책제언 및 추진현황 평가

-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지원정책은 급속도로 발전해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와 법이 마련되었고 많은 제안들이 받아들여져 추진되고 있음.

[표 1] 2013-2015 기존 연구 정책제언 및 추진현황 평가

기관	과제	정책 제언 ²⁾	추진 현황 및 평가
		세부과제	
예방 정책	발굴	학업중단 조기경보제 도입	교육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진단도구 개발 및 숙려제 대상 자퇴자에서 위기 학생으로 확대
	인적 자원	위기학생 사례관리와 맞춤형지원을 위한 학교 전문인력 확보	여가부 - 교육부와 Wee Class가 없는 학교의 경우, 꿈드림센터에 연계 하도록 합의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
		위기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강화	교육부 - 꿈기움 멘토단 운영 여가부 - 꿈드림 멘토단 운영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에 상담인력 증원	교육부 - 학업중단 50명 이상 다수발생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	추진된 바 없음
	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교육부 -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 개발 보급 학업중단예방 콘텐츠 개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집 개발 · 보급
		특성화고등학교 예방대책 수립	교육부 -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 실시 해당 학교에 교육복지사 우선 배치
		방과 후 학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 대안교실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나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는 미흡
		고 1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지원	고등학교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하나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등에 확인 필요
	추진 체계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교육부 - 해당 학교 컨설팅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 장학사 참석 의무화가 필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굴 · 연계	학업중단 시 정보제공 강화	교육부 - 학교밖 청소년 진로 가이드북 발간 · 보급 등 정보제공 노력 강화 여가부 - 개인정보 동의 학업중단학생 정보를 교육청에서 꿈드림센터에 연계하도록 법제화 교육부 - 미취학 · 장기결석자 범부처 전담기구 운영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순기능하도록 지원 필요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 시 안내	여가부 -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은 2014년 5만 건에서 2015년 9만5천 건으로 증가 ³⁾
		학교, 고용센터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 강화	여가부 -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전국 88개) ⁴⁾ 와 연계 미흡

2)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276

3)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p. 93.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index.do>에서 2016년 10월 27일 인출.

기관	과제	정책 제안 ²⁾	추진 현황 및 평가
		세부과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학업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자에 대한 보호와 학업지원	교육부 -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자 전담기구 법제화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대안교사 양성과정 설치,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교육부 - 대안교실,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확대 추진,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미흡 →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검정고시 지원	여가부 - 특별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학원비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부족한 상태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학원비 등 지원 의무화 필요
		복교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 학업중단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교육청에서 중단학생 현황 파악 가능 복교지원 프로그램은 부산교육청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실시 중 → 복교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
	직업	일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 - 고교 재학생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지원	여가부 - 직업역량기움 교실 추진 노력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민간협력 강화 추진 직업훈련 · 인턴십까지 제공하는 사업장 개설 등 창업캠프 지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를 꿈드림센터에 위탁 요청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청소년 참여율 평가	여가부 - 청소년 사업안내 매뉴얼에 홍보됨, 고용센터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음. →고용노동부사업에 청소년참여 제고 노력 계속되어야 함.
		커리어넷 보안을 통한 자격증 정보 통합 지원	시행되지 않음.
		진로교육 담당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진로교육 기회 제공	시행되지 않음.
	무업	비행청소년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중앙정부 - 미 실시,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MOU를 통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
		비행형 청소년 사회적 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가부 -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무업형 청소년 거점 문화공간 설치	교육부 - 친구랑 센터 서울시 - 휴 카페 설치 운영함 → 지역 내 거점 공간확대, 무업형 청소년대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담인력 배치 필요
		도래관계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여가부 -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무업형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여가부 - 미 실시
		생활지도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여가부 - 자기계발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 실시

기관	과제	정책 제안 ²⁾	추진 현황 및 평가
		세부과제	
추진 체계	조직	꿈드림센터 설치·운영(중앙/지역)	교육부 - 학업중단예방센터 설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확대, (교육청별) 대안교육지원 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규정 마련
		지역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서울시 교육청 - 외 미 실시
	계획	지역별 대책 수립	지역교육청 - 계획 수립, 교육부 제출 지방자치단체 - 조례에 법적 근거 마련
	평가	청소년 참여적 평가체계 수립	여가부 - 꿈드림지원단 구성, 정책제안참여시→ 정책평가는 없음.
		학교평가지표에 반영	교육부 -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여 실시
	실태 파악	중단사유 조사 및 기입 지침 마련	교육부 - NEIS시스템 상 중단사유 세부화
		학업중단 청소년 추적조사체계 구축	여가부 - 학교 밖 청소년 매 3년 조사 계획 수립 → 그러나 학업중단자에 대한 추적조사체계는 없음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 구축	여가부 - 고용노동부 등 사업 참여자 연령별 통계 산출시 학력사항 분석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 연구	국무총리실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대책 연구 지원

2) 정책제안

영역 1	학업 지원 대책
------	----------

과제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학업을 지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인당 공교육비 수준에 상응하는 학습바우처가 제공되어야 함. 학교를 중단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교육급여와 청소년증을 받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함.

과제 2. 학업중단자 수, 결석일수를 학교예산 배분기준에 반영

- 학업중단학생 수와 결석자 수를 반영하여 학교 전입금을 배분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결석자 수를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와 교육청은 장기결석자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과제 3. 연령별·성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특성에 따른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보

- 초중학교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공동체적 경험을 수반한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단계에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과 더불어 검정고시 준비가 결합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확대되어야함: 학생들의 일과표에 맞춘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함.

과제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지원기관 설치·운영

- 미국의 Re-Engagement 센터 및 영국의 PRUs와 같이 교육청이 학생의 학교복귀를 책임지는 정책을 구현해야 함.
-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학교 복귀 지원 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야 함.

과제 5. 인문교양교육과정의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발견, 삶의 가치와 진로교육,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인생을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인문교양교육임.
- 이들에게 일정한 시간의 인문교양교육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학습시간 누적을 통한 학력인증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영역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과제 6. 고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을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취업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함: 바로 취업이 가능한 청소년집단은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청소년은 바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현재 청소년 대상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은 직업탐색, 직업 및 직장견학, 직업체험 등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실시되고 있음.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기술, 학업, 복지적 지원 등을 통합한 프로그램,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유연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과제 7. 취업사관학교용 모듈형 선택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월별, 쿼터별 프로그램, 특강형 등 훈련과정을 다양화하고, 훈련 기간과 직종 등도 개인에게 맞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함.

과제 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

-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로직업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꿈드림센터 서비스는 학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꿈드림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진로/직업상담 집중연수를 실시하거나, 향후 인력 총원 시

진로직업전문가와 사례관리자 등을 총원할 필요가 있음.

과제 9. 일 학습병행제 TYPE II 개발

- 취약·위기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학력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II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업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개발·운영함.
- 작업장을 통해 청소년들은 도제훈련을 받으면서 학력도 인증받을 수 있으며, 작업장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과제 10.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도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의 실적 평가지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사업실무자들이 성인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은 청소년 선발을 기피하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대부분 성인 위주이기 때문에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지 않음.
-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 및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고 성과지표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 11. 청소년 일자리센터 설치

- 취업전망과 성장가능성, 장래를 고려한 노동경험과 일자리 제공, 일자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 일자리 센터가 필요하나, 현재의 고용센터에서는 청소년에게 집중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일자리센터가 설치가 필요함.

과제 12. 지역 고용센터와 꿈드림센터 통합운영 시범 실시

-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고용분야와 청소년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역에서 고용센터와 꿈드림센터의 통합운영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영역 3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과제 13.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태조사는 전무함.
- 정책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과제 14.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구축

- 읍면동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학교, 경찰과 꿈드림센터가 협조하여 실시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가정에 은둔해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파악해야 함.
- 꿈드림센터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담당함.

과제 15.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

- 부모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은둔 무업형 청소년을 둔 부모와의 상담, 부모 세미나 등을 통해 부모를 치료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과제 16. 찾아가는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 학교 밖 지원센터 상담사, 청소년동반자 또는 방문상담자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과제 17.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관 설치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은 은둔 계기, 은둔 기간 등에서 모두 다르고 유형도 다양하므로 이들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일본에서는 은둔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공동생활 기숙사나 자립생활관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관이 필요함.

영역 4

전달체계: 꿈드림센터 강화

과제 18. 꿈드림센터의 업무 설계

- 꿈드림센터 직원은 시도센터 5명, 시군구 센터 2명 이상으로 매우 작은 조직임. 작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설계가 필요함.
- 꿈드림센터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사례관리임: 의뢰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은둔해 있는 청소년 발굴을 위해 지역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의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외에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과제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체계 및 임금체계 개선

- 꿈드림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인력부족이 심각하며 인건비 수준도 가장 낮은 편임: 이러한 환경은 상담사의 업무능력 축적을 방해하고 사업의 안정성도 위협하고 있음.
- 정책환경과 상담수요변화 등을 반영한 전체적인 직무개선 조치가 필요함.

과제 20.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꿈드림센터 시범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의 시간이 일과시간과 맞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음.
- 몇 개의 시범센터를 선정하여 휴일, 야간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 21.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꿈드림센터는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꿈드림센터의 지역연계 서비스 제공 실적은 낮은 편임.
-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작업에 힘을 기울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 기관으로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과제 22. 꿈드림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로직업 상담과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 서비스이지만 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꿈드림센터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무자에 대한 집중연수가 필요함.

영역 5**좀 더 촘촘하고 빠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과제 23.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 중앙정부 사업은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자체 행정단위는 접근성 면에서 발굴이 더 쉬운 편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의 재가복지사업 과정이나 청소년증 발급 등을 통해 은둔 무업형 청소년에 대한 접근과 정책 홍보가 가능함.

과제 24. 교육(지원)청과 꿈드림센터 간 신속한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시 신속히 정보가 연계된다면 꿈드림센터가 중단 후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학업중단 숙려제, 취학관리 전담기구 등에 꿈드림센터 상담사가 참여한다면 학업중단 학생 정보를 보다 신속히 접하게 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또한 신속해 질 수 있음.

참고문헌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index.do>(2016년 10월 27일 인출)